

조선시대 서적과 인쇄문화

임태용, 117호 조선 I 실 18:00~18:30

조선시대는 우리 역사에서 전통적 기록 및 인쇄문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기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실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조선의 서적과 인쇄 문화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여러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지학적 관점에서 서적은 사본寫本, 목판本木板本, 활자본活字本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사본이란 인쇄 방식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직접 내용을 필사한 것을 말합니다. 조선실에는 조선시대의 사본을 대표하는 유물로 『외규장각外奎章閣 의궤儀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외규장각 의궤』는 그 수량의 대부분이 임금이 열람하는 이른바 ‘어람본御覽本’으로서 왕실의 전문 서사書寫 관리인 사자관寫字官의 빈틈없는 필체가 단연 돋보이며, 고려시대의 『사경寫經』과 함께 한국 사본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문화재입니다.

목판인쇄는 확정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동일 내용의 서적을 대량으로 제작하는데 장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직접 쓰거나 활자 인쇄를 통해 판하본板下本을 마련하여 인쇄 목판을 제작하였고, 특정한 서체를 그대로 새겨 간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금 또는 당대의 명필가가 쓴 서문序文 등을 모각摹刻하여 수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실에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1447년 初刊), 『국조보감國朝寶鑑』(1848년 刊) 등의 귀중본 목판인쇄 서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태종 3년(1403)에 계미자癸未字를 처음 주조한 이래 활자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서적을 신속하게 인쇄하여 정치·사회적 수요에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주요한 활자는 세종 16년(1434)에 처음 제작된 갑인자甲寅字 계열의 것들이며, 정조 1년(1777)의 정유자丁酉字(육주六鑄 갑인자)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반복 주조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세조 원년(1455)에 강희안姜希顔의 글씨를 자본字本으로 주조한 을해자乙亥字는 미려美麗한 자체字體로 유명합니다. 이 활자들과 함께 교서관인서체자, 정리자, 실록자 등의 금속활자와 한글활자의 실물 및 인쇄물을 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 시간에는 고문헌을 판본학적版本學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러 관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 『효명세자가례도감의궤』 (1819년,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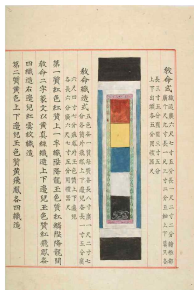


그림 2 『용비어천가』 (1447년 목판 초간初刊)



그림 3 『능엄경언해』 (1461년 을해자 간행)



제72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5월 17일)

삶과 죽음의 경계, 고구려 벽화무덤

장은정, 105호 고구려실 18:00~18:30

고대 사회에서는 대형 무덤을 축조하여 죽은 이가 삶의 영역 안에서 소유했던 지배적 힘과 권위를 죽음의 공간 속에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구려 무덤은 강돌이나 다듬은 산돌을 쌓아 만든 돌무지무덤과 커다란 판석으로 무덤방을 만들고 흙을 덮어 만든 돌방무덤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고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통치 질서를 공고히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지배층의 무덤 축조에 많은 사회적 공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집안 일대에 군집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는 대형 돌무지 무덤들은 이를 잘 보여 주는 예입니다. 이러한 대형 무덤을 축조하는 행위는 죽은 이를 위한 것 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권위와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지배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축조한 무덤에는 죽음에 직면해 사후 세계를 바라보는 현세인의 내세관과 함께 현실 생활의 모습이 투영되었습니다. 이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것이 돌방무덤 안에 그려진 다양한 벽화들입니다. 영토 확장 과정 중 다양한 문화 접촉을 통해 형성된 고구려 무덤의 벽화 예술은 무덤 내부의 장식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유한성에 직면했던 고구려인들이 죽음 이후 세계와 관련해 던졌던 의문과 그들의 해답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벽화가 그려진 고구려 무덤은 옛 수도 일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여러 주제가 다루어졌는데 생활풍속, 장식무늬, 사신도四神圖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 현세의 생활 공간과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 생활풍속도에는 내세에서도 삶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속되기 바라는 고구려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성스러운 존재들이 등장하는 천상 세계를 벽화에 담아 죽음 이후 도달할 세상을 현세와 전혀 다른 성격의 곳으로도 형상화하였습니다. 장식무늬로 불교의 정토(淨土)를 상징하는 연꽃 무늬가 자주 선택되며, 넝쿨 무늬·동심원무늬·‘왕(王)’자 무늬·구름 무늬 등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현실적 공간의 내세와 초월적 성격의 내세가 공존하던 고구려 무덤 벽화는 6세기 이후 현실 세계가 사라지고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특히 사신에 대한 인식이 체계화되면서 사신의 비중이 높아지고 신령스러운 모습으로 형상화됩니다. 반면 연꽃을 비롯한 불교적 제재는 벽과 천정을 장식하는 하나의 부수적 요소가 되는데 이는 내세에 대한 고구려인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합니다.

제72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5월 17일)

신라 금관의 제작기술

신용비, 108호 신라실 19:00~19:30

신라의 금관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 천마총의 5점과 교동에서 도굴된 1점 등 모두 6점입니다. 현재 전시중인 황남대총 북분의 금관은 지금까지 출토된 ‘출출’ 자모양 세움장식의 금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입니다. 3개의 나뭇가지 모양[樹枝形] 장식과 2개의 사슴뿔모양[鹿角形] 장식을 관테의 안쪽에 덧대어 금못 3개를 세모꼴로 박아 고정시켰습니다. 관테에는 상하의 가장자리에 2줄의 연속점무늬[點列文]와 물결무늬[波狀文]를 1줄씩 표현하고 그 가운데에는 1열로 굽은옥[曲玉]을 매달았습니다. 세움장식의 끝가지는 3단으로 되어 있고, 굽은옥이 일정한 간격으로 1개씩 달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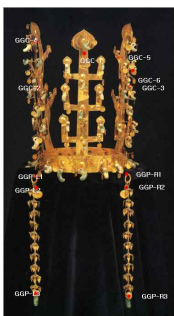
신라 금관의 금순도를 분석해 보니 금관 6점은 모두 금과 은으로 합금되어 있었고, 세움장식 금관 순도를 무덤별로 나열하면 교동 89.2wt%, 황남대총 북분 86.2wt%, 금관총 85.4wt%, 천마총 83.5wt%, 금령총 82.8wt%, 서봉총 80.3wt% 순으로 함량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봉총 금관 내면에 반구형 장식판과 봉황장식판의 금함량은 73~74wt%로 금관의 외연인 입식과 대륜 금관보다 금순도가 6~7wt%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관의 형식에 따른 제작 연대와 비교해보면 금관 중에서 가장 고식(古式)인 교동 금관이 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세기 중후반에 축조된 황남대총과 금관총의 합금비가 유사하였고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의 천마총, 금령총, 서봉총의 순으로 빠른 시기의 무덤일수록 금관의 순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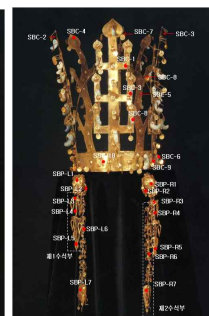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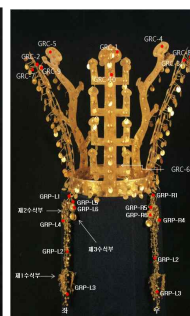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금관



천마총



금령총



서봉총



제72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5월 17일)

바람을 부르는 그림 속 꽃과 동물

윤종균, 202호 서화Ⅱ실 19:00~19:30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은 감상과 장식이라는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람을 표현하는 상징 언어입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동식물은 때론 긍정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연을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선조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배어난 자연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것은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한 오랜 화두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징의 의미는 동식물의 습성을 비롯한 생태를 지나치지 않고 꼼꼼하게 바라보는 섬세함과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해학적 감성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우리 문화의 빛깔이기도 합니다. 천년을 이어온 그 빛깔은 사고의 생명체로 시대에 따라 의미가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림 속에 내포된 의미의 파악은 당시 사회의 문화 코드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숲과 나무는 단지 식물을 넘어 인간과 함께 살아온 문화 공간으로 그곳에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숲의 신화와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생겨납니다. 숲의 날숨과 들숨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이야기는 예술의 소재가 되고 그 의미는 세월이 지나면 역사가 됩니다. 때로는 허망한 이야기일지라도 우리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것은 희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뿌리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과거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무를 보려면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빼고는 나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는 것은 다른 의미의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나무는 지구상의 생명체 가운데 사람과 같이 수직으로 곧추선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사람과 마주하고 서서 하늘과 대지를 잇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듯 스스로 자양분을 만들어 내는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너그러워지고 아름다워집니다.